

화합과 운명의 대화, “저 너머 위치에 있는”:

한-러 국교 정상화 30주년 음악회,

“거장이 전해주는 메시지 I”

가욱 루드밀라

지난 11월 11일, 서울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는 “거장이 전해주는 메시지 I - 쇼스타코비치 & 라스카토프”라는 음악회가 있었다. 한-러 국교 정상화 3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문화재단, 주한러시아대사관 등의 후원 및 현대음악국제협력연구센터(이하, IRC로 표기)가 주최하여 그동안의 양국 교류를 기념하는 자리였다. 이 공연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세기 러시아 작곡가의 작품들이 연주되는 동시에, 현재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러시아 및 한국의 작곡가 작품들도 더불어 소개되었다는 것, 둘째,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은 모두 초연이었다는 것, 그리고 성악 모음곡과 연가곡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리나 쇼스타코비치(Irina Shostakovich), 기돈 크레머(Gidon Kremer), 바딤 레핀(Vadim Repin) 같은 거장들이 이 음악회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이리나 쇼스타코비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부인으로 이 음악회를 위해 특별히 ‘격려의 글’을 남겼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이리나는 IRC 주최의 첫 음악회를 축하하며, 직접 참석 못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기돈 크레머는 라트비아에서 출생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로서 음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잊혀진 작곡가들을 찾아내어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 기돈 크레머는 서울 공연에 참석하는 라스카토프에 대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작곡가”이며,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에 걸쳐 성공적으로 연주되고 있다.”는 축하의 글을 남겼다. 러시아와 벨기에에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은 “위대한 작품, 그리고 음악 작품의 작곡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드물지만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주한 러시아 대사인 안드레이 쿨릭도 대한민국-러시아 외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음악회를 향한 본인의 기쁜 마음을 직접 표현하였다. 그는 “한국에 러시아 음악을 알리고 양국의 예술분야 협력과 관계 강화를 위해 애써 주

시는 모든 출연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연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창작하고 기교적으로 잘 다룰 줄 아는 현대 작곡가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고전음악 연구자 입장에서도 수준 높은 현대 음악을 접하고 작곡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그런데 이 공연을 통해서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인 알렉산드르 라스카토프 (Alexander Raskatov)와 이철우(Chol-woo David Lee)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본 음악회에서는 20세기의 음악으로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의 《왈츠 2번》(Valse no.2 from the Jazz Suite no.2, 1938), 《블로크 시의 7개 로망스》(Seven Romances on Poems by A. Blok, 1967)와 《미켈란젤로 시에 의한 모음곡》(Suite on Verses of Michelangelo Buonarroti, 1974)이 소개되었고, 21세기 음악으로는 라스카토프의 《기도》(Gebet, 1996), 《하얀 날》(White Day, 2019), 그리고 이철우의 《소망》(Hoffnung, 2019)이라는 작품들이 연주되었다.

연주 곡들 중에서 한국 청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곡은 경쾌하고 낭만적인 멜로디의 왈츠 연주곡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의국어 대학 노어과 명예교수인 기연수의 시 《조국의 혼》을 가사로 붙여서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이중창으로 변주 되었다.

이 음악회에서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끌렸던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블로크 시의 7개 로망스, op.127》 중 no.4-7과 라스카토프의 소프라노와 현악 4중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철우의 《소망》이었다. 일반적으로 《블로크 시의 7개 로망스》는 연가곡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쇼스타코비치는 그 작품이 소프라노, 바이올린,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으로 정의되기를 원했다. 그 이유는 악기 부분이 성악 성부를 위한 반주 역할이 아니라, 네 개의 각 파트가 독립된 역할로 등등한 앙상블로 구성되어

성악 부분도 악기처럼 기능하도록 작곡되었기 때문이다. 소프라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4개 악기는 《일곱 개의 로망스》에서 각각 다른 조합으로 연주된다. 예를 들면, 1번 <오페리아 노래>(Ophelia's song)는 소프라노와 첼로와의 대화, 4번인 <잠든 도시>(The City is Asleep)는 삼중주(소프라노, 첼로와 피아노)이다. 네 개의 악기는 마지막인 곡 <음악>에서 유일하게 다같이 연주된다. 쇼스타코비치는 전체 모음곡을 7곡의 제목을 사용하여 《음악》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블로크의 일곱 번째 시를 보면 알 수 있다.<sup>1)</sup>

불안이 잠드는 밤에,  
도시가 어둠 속에 숨을 때,  
오, 주님의 음악은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많은지!

러시아 시인 블로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보자면, 블로크에게 음악이라는 의미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합(harmony)이다. 시인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블로크는 정치적 이유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고난을 당했던 20세기 초반의 시간들을 “음악적인 영혼을 잃어버린 시대”로 정의하였다.<sup>2)</sup>

그의 시는 이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쇼스타코비치는 동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그의 시에 관심을 갖고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쇼스타코비치의 《블로크 시의 7개 로망스》에서는 두 개의 라인- 낭만성과 불안정-이 맞물려 있

1) Dmitri Shostakovich, “Seven Romances on Poems by A. Blok. Vocal-Instrumental Suite for soprano, violin, cello, and piano,” *DSCH. The Life and Creative Work of Dmitry Shostakovich*, <http://live-en.shostakovich.ru/composition/318/>. 검색일: 2019. 12. 10.

2) Alexander Blok, “The Collapse of Humanism,” *Literature and Life*, 1. The essay was originally published in *Flag* (Знамя), no. 7-8 (1921) [http://dugward.ru/library/blok/blok\\_krushenie\\_gumanizma.html](http://dugward.ru/library/blok/blok_krushenie_gumanizma.html), 검색일: 2017. 7. 20.

다. 이 작곡가는 블록의 시에 담겨 있는 철학적인 의미에 따라 인생과 사랑, 사망과 영생에 대하여 깊은 사고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하여 분명한 화성보다는 모든 선율을 단선 짜임새(monodic monophony of lineal texture)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알렉산드르 라스카토프는 러시아 작곡가 중에서 비교적 젊은 대표자로 인정받고 있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라스카토프는 이민자로 불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민자라는 용어를 모욕적인 말이라고 여기는데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생각이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창조 활동은 여러 장르의 경계선에서 혹은 그 경계선을 넘나들 때 이루어진다.”<sup>3)</sup>고 말한다. 이는 특별히 자신의 문화와 새로이 접하게 된 타국의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sup>4)</sup>

라스카토프의 생각은 러시아 철학자인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 1895-1975)의 “저 너머 위치해 있는”(being located beyond)이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이 개념을 이번 음악회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은 한국 시인의 시를 가사로 이용하여 한국어로 연주되었고, 《기도》라는 라스카토프의 작품은 이디시어(Yiddish)로, 이철우의 《소망》은 독일어로 노래되었기 때문이다.

《기도》과 《소망》 두 작품에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공통으로 나타나 있다. 라스카토프가 《기도》를 소프라노와 현악4중주를 위하여 1996년에 작곡하였다. 이 성악곡은 유대인들의 카디시(Kaddish)라는 기도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카디시 기도는 레너드 번스타인(L. Bernstein)의 교향곡3번(1963)과 모이세이 바인베르그(M. Weinberg)의 교향곡 21번(1991)를 통해

3) Elena Dubinets, *Mozart does not Choose a Motherland: On the Music of the Contemporary Russian Emigration* (Moscow: Muzizdat, 2016), 15.

4) Elena Dubinets, 16.

서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청중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주제이다. 《기도》는 프랑스의 출신의 성악가이며 라스카토프의 아내인 엘레나 바실리에바(Elena Vasilieva)가 불렀고, 변예진과 박진수가 바이올린, 황규연과 변새봄이 각각 비올라와 첼로로 반주를 하였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위대한 그의 이름  
 그가 창조한 이 세상에 그의 예언에 따라  
 그의 왕국을 건설하시기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날에  
 이스라엘 온 족속의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자.

그의 위대한 이름을 경배할지라 영원히 축복받으,  
 축복받고 찬미하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이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거룩한 자의 이름  
 복이 있을 지어다, 축복하라 찬양과 경배  
 세상의 모든 노래로 아멘으로 화답하자.

카디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거룩한 경배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승하는 송가 선율로 만들어졌다. 마음의 아픔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짧게 끊어서 노래한다. 상행 선율에 대조되게 울부짖는 소리는 하행에서 나타나며 상행과 하행은 서로 교차한다. 이러한 표현은 즉, 인간의 운명은 알 수 없으며 항상 가혹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바실리에바의 한국 음악회는 두 번째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드라마틱한 소프라노로 아름답고 풍부한 음색과 음량으로 잘 알려져 있어, 고전 오페라에서부터 현대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배역을 맡아서 공연을 해왔다.

바실리에바는 이철우의 《소망》도 노래했다. 《소망》은 소프라노, 바리톤, 아쟁과 피아노를 위한 성악곡이다. 《소망》은 2019년 8월에 작곡되었고 2019년 11월 11일의 초연으로 청중들에게 처음 소개되었다. 피아니스

티이자 작곡가인 알렉산드르 라스카토프가 피아노를 맡고, 구은심이 아쟁을 맡았다. 바리톤 성부는 김보람이 노래했다. 《소망》의 첫 페이지에는 “이 작품을 친애하는 고(故) 황국환 목사님과 김경신 사모님 그리고 이 작품을 위촉한 사랑하는 친구인 소프라노 엘레나 바실리에바에게 헌정합니다.”라는 헌정사가 적혀 있다. 시 <소망>의 작품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늠할 수 있다.

암투병중인 목회자의 새벽묵상, 세상 떠나기 며칠 전.  
그리고 그는 2019년 7월 20일 새벽 0시 20분 소천(召天)하셨다.

《소망》의 가사는 암으로 돌아가신 황국환 목사님의 시이다. 작곡가 이철우는 묵상으로 영감을 얻은 시적인 언어에 시작과 마침 어구를 추가 하면서 바리톤(시인)과 소프라노(천사)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이 두 명의 대화는 암에 걸린 시인(바리톤)과 속세를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소프라노)와의 대화인 것이다. 시인은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 시인은 암이라는 아픔을 친한 친구로 받아드린다. 이 친구가 시인에게 인생과 세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도록 천사가 시인을 도와준다.

피아노와 아쟁 부분은 단순히 성악 성부를 반주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작곡가가 구상했던 극적인 장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네 개 파트의 독립적인 역할 때문에 이 작품의 장르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단순한 성악곡이 아니라 극적인 대화의 형식이 포함됨으로써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개인의 아픔에 대한 대답을 갈구하는 시인과 천사와의 대화로 영혼과 육신의 대화라고 볼 수 있다. 《소망》을 들으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세 가지 모티브가 분명하게 보인다. 세온음(triton)과 트리코드(trichord)-모티브, 온음음계(whole-tone scale)가 그것들이다. 작곡가는 모티브를 시에서 가져와 하나의

상징으로서 시용하였다. 앞의 두 모티브는 아픔과 질병을 상징하며, 이 둘은 음향을 통해서 콘텍스트를 구성한다. 세 번째 모티브인 온음음계는 희망을 상상하게 하는 상행의 특징을 갖고 있다. 아픔에 대한 표현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남아있지만, 질병과 희망을 상징하는 트리코드-모티브와 온음음계는 확장하고 방향을 바꾸어 나타나고 있다.

쇼스타코비치를 제외하고 라스카토프와 이철우는 음악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에게만 알려져 있을 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동시대의 작곡가이다. 그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중들에게 현대 음악에 대한 비교적 높은 이해가 요구된다. 작곡가 이철우는 대중 강연에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음악의 세계는 설명을 곁들일 때 마치 음악이 말을 하는 것 같이 새롭게 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1세기 중반으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현대 음악에 대한 메시지를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음악의 메시지를 연구하는데 있어 “음악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콘텍스트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콘텍스트는 사회, 문화, 민족과 동시대의 정치적인 이념과 사고체계와도 관련있다. 동시대 음악의 메시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동시대의 음악, 특히 대규모의 클래식 장르를 분석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또한, 음악의 저작권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악보나 기타 작곡에 사용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날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공연은 끝났지만 청중들은 한참 동안 연주회장을 떠나지 못했다. 아마도 공연에서 받은 깊은 감명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이어진 탓일 것이다. 독창적인 작곡가들, 흥미로운 장르, 작품의 깊은 내용 등이 함께 어우러진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러 수교가 30년이 되는 2020년 10월에는 “거장이 전해주는 메시지 II”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 줄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참고문헌

- 채현경. “대안음악학을 생각한다.” 『새 음악학 해체, 페미니즘, 그리고 통합』 서울: 궁리, 2007, 13-32.
- 이철우. 《소망》. 악보. Unpublished. August 2019.
- 이철우. 《소망》. 녹음. 2019. 11. 11.
- 현대음악국제협력연구센터. 『거장이 전해주는 메시지 I: 쇼스타코비치 & 라스카토프』. 팸플릿. 2019. 11. 11.
- Blok, Alexander. “The Collapse of Humanism.” *Literature and Life*. p. 1 First publication *Flag* (Знамя), no. 7-8 (1921). [http://dugward.ru/library/blok/blok\\_krushenie\\_gumanizma.html](http://dugward.ru/library/blok/blok_krushenie_gumanizma.html). 검색일: 2017. 7. 20.
- Raskatov, Alexander. “《Gebet》.” <https://www.youtube.com/watch?v=QuzjNyO-MXM>. 검색일: 2019. 11. 09.
- Shostakovich, Dmitri. 《Seven Romances on Poems by A. Blok. Vocal-Instrumental Suite for soprano, violin, cello, and piano.》 *DSCH*.
- “The Life and Creative Work of Dmitry Shostakovich.” <http://live-en.shostakovich.ru/composition/318/>. 검색일: 2019. 12. 10.
- Dubinets, Elena. *Mozart does not Choose a Motherland: On the Music of the Contemporary Russian Emigration*. Moscow: Muzizdat, 2016.